

순천시 낙안읍성 마을당산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고찰

최재웅* · 김동엽** · 김미희* · 박광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당산숲·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당산숲·비보숲의 조형양식은 민간의 마을 뿐만 아니라, 읍성, 산성 등 행정관서 관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상섭, 2004; 최재웅 등, 2009).

순천시는 지난 9월 16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순천시청은 지난 7월 31일 '한국의 역사마을 낙안읍성(Korean Nagan Historic Village)'이라는 주제로 낙안읍성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본 연구대상지인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성내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유일한 전통 마을로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명소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계획도시로서 낙안읍성의 핵심 인프라 시설로 조성된 당산과 당산나무, 당산숲 등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낙안읍성을 방문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낙안읍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마을의 당산, 당산숲과 그 문화가 세계에게 널리 소개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경관과 전통 마을정원으로서의 당산숲이 올바르게 알려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낙안읍성 내 3개 마을의 당산과 그 구성요소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순천시가 낙안읍성의 마을당산과 그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낙안읍성(樂安邑城)은 고려 후기부터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 전기에 흙으로 쌓은 성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돌로 다시 성을 쌓아 규모를 넓혔다고 한다. 1983년에 사적(史蹟) 제302호로 지정된 이후 1984~2005년까지 성곽 보수 1,410m, 민가 보수 94호 등 보수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http://www.cha.go.kr>).

현재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서내리, 남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223,108m²(성내 135,597m², 성외 보호구역 87,511m²)이며, 108세대(성안 78, 성밖 30), 2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소장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성곽 1,410m와 중요민속가옥 9동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객사 1동과 노거수 15주가 있으며, 도문화재자료로 임경업군수비각 1동 등이 있다(<http://tour.suncheon.go.kr>).

2. 연구방법

당산(堂山)과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마을 상당(上堂), 중당(中堂), 하당(下堂)의 위치를 파악하고 돌담과 당산목 등 노거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수목의 조사항목은 수종, 그루 수, 흉고직경 등으로서 흉고직경 40cm 이상의 것만을 조사하였다. 고지도(古地圖)와 문헌검색 및 이장 등 마을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당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고지도는 성내의 낙안읍성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라좌도낙안군지도(全羅左道樂安郡地圖)를 참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낙안읍성 3개 마을당산의 형태·규모

낙안읍성 내 3개 마을은 각각 상당, 중당, 하당을 갖고 있다. 3개 마을 당산을 실측하여 구한 현황은 표 1 및 그림 1, 그림 2b와 같다. 그림 2b에서 우측의 a-b-c 연결선은 동내리의 상당-중당-하당을 나타낸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남내리 것이며, 좌측의 a-b-c 연결선은 서내리의 상당-중당-하당이다. 그림 1은 각 마을의 상당만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3개 마을당산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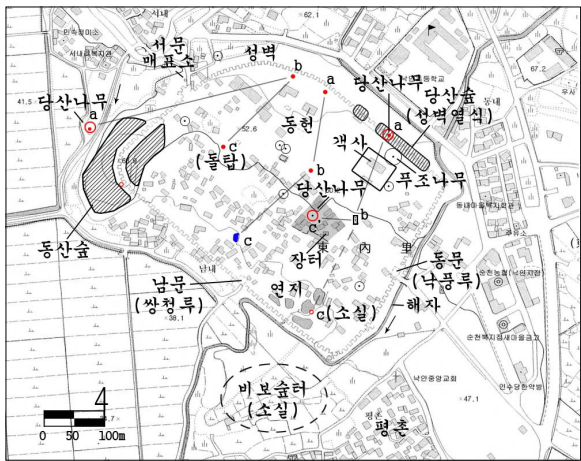
마을명	당산 위치 및 구성요소			당산제 날짜	당산제 주체	비고
	상당	중당	하당			
동내리	느티나무(당산숲), 돌탑	임경업장군 비각	연지 옆(소실)	정월대보름	낙안읍성 보전회	은행나무 당산목
서내리	느티나무, 돌탑	돌탑	돌탑	정월초이틀	서내리 주민	동산숲(자연식생)
남내리	돌탑	돌탑	큰샘	정월초삼일	남내리 주민	비보숲(소실)



그림 1. 낙안읍성 3개 마을당산의 상당



a: 전라좌도낙안군지도



b: 낙안읍성 3개 마을당산 현황도

그림 2. 낙안읍성 고지도 및 현재의 3개 마을당산 현황도

동내리의 상당은 객사 뒤 성벽에 있는 당산나무 및 돌탑이며, 중당은 임경업 장군 비각이고, 하당은 소실되었는데, 당산제를 지내는 장터의 은행나무가 하당 역할을 하고 있다. 서내리

의 상당은 성밖에 있는 당산나무 및 돌탑이며, 중당은 동헌 왼쪽의 내아(內衙) 건물 뒤 성벽에 있는 돌탑이고, 하당은 마을 중심부의 돌탑이다. 남내리의 상당은 동헌 뒤 성벽에 있는 돌탑이며, 중당은 동서로 나 있는 도로가의 돌탑이고, 우물인 '큰샘'이 하당이다(그림 2의 b 참조).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의 돌탑은 복원사업을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고, 원래는 입석과 고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동내리 당산제는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 주축로 음력 정월대보름에 열린다. 서내리와 남내리 당산제는 예산지원 없이 마을주민들이 각각 정월초이틀과 정월초삼일에 지낸다. 당산제는 상당을 먼저 하고 나서 중당, 하당의 순서로 하지만, 동내리는 임경업 장군에 대한 추앙으로 인해 중당인 임경업 장군 비각에 먼저 제를 올리고 나서 상당, 하당의 순서로 진행한다.

2. 마을당산의 노거수

마을 홈페이지 등을 보면 읍성안에는 노거수로서 은행나무 등 32그루가 있고, 이 중 15그루(은행나무 3, 팽나무 6, 느티나무 1, 푸조나무 3, 개서어나무 2)가 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내리의 경우, 흉고직경 40cm 이하인 느티나무 2그루, 푸조나무 2그루를 제외하고 성벽에는 당산나무를 포함하여 11그루가 열식되어 있다. 객사와 성벽 사이에는 푸조나무 2그루가 있고, 객사 우측에 팽나무 1그루가 있다. 이들 14그루는 훼손되기 전에는 원래 한 덩어리로서 당산숲의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객사와 성벽 사이의 푸조나무는 밑둥이 붙은 2그루인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식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나무이다. 낙안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에 속한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여러 차례 낙안읍성을 방문하여 의병들을 모으기도 하고 군량미를 조달하기도 하였다고 전하는데, 어느 여름 이순신 장군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낙안군을 찾아 낙안객사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준비한 10년생 팽나무 한 그루를 객사 뒤편 마당에 기념식수하고 낙안의 유지들과 국운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전한다(송갑득, 2006).

서내리는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1그루외에 팽나무 1, 푸조나무 1그루가 흩어져 있다. 서내리의 동산숲은 전라좌도낙안군지

표 2. 낙안읍성의 노거수 현황

마을명	식생	비고
동내리	성벽 열식: 느티나무* 1주(135cm), 팽나무 5주(91cm), 푸조나무 3주(94), 개서어나무 2주(77)	당산숲
	그 외: 팽나무 1주(130cm), 푸조나무 2주(208cm), 은행나무 3주(243cm)	푸조나무: 이순신장군 식재, 장터 소재 은행나무*
서내리	느티나무* 1주(220cm), 팽나무 1주(70cm), 푸조나무 1주(100cm)	동산숲 (낙엽활엽수림)
남내리	낙민루앞: 느티나무 2주(116cm)	남문 밖 보숲(소실)
합계 (22주)	느티나무 4주(147cm), 팽나무 7주(93cm), 푸조나무 6주(133cm), 개서어나무 2주(77cm), 은행나무 3주(243cm)	-

*: 당산목, () 안의 숫자는 평균흉고직경

도에도 표시되어 있다(그림 2의 a 참조). 성 안쪽의 동산숲은 주로 대나무로 되어 있고, 성 밖은 상수리나무 등 낙엽활엽수로 되어 있으며 자연식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남내리는 낙민루 앞의 느티나무 2그루와 집 담으로 둘러싸여 접근할 수 없는 은행나무 1그루가 있는데, 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장터안의 은행나무는 원래 남내리에서 당산제를 지냈었다고 한다. 전라좌도낙안군지도를 보면 읍성을 외부시야로부터 차폐하기 위한 비보숲이 성밖의 남내리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현재 이 비보숲은 소실되어 없으며, 그 자리에 과수원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2의 a, b 참조). 따라서, 낙안읍성의 총 노거수는 22그루로서, 느티나무 4, 팽나무 7, 푸조나무 6, 개서어나무 2, 은행나무 3그루가 현존해 있다(표 2 참조).

3. 마을당산의 의미

순천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 추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한편, 다른 주민들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임의로 조성해 놓은 용인민속촌보다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복원했다는 민가들도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 길어봐야 25년 전에 새로 만든 것으로 겉모양은 초가집이지만 내부는 모두가 입식부엌에 좌변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현대식이다. 낙안읍성에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은 객사건물, 임경업장군비, 석구, 성곽 일부 등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인터넷 오마이뉴스, 2009). 그러나, 물리적인 조건보다 문화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기준을 보면 1)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2)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

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등이 주요 항목이다. 또한,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자산의 선정 요건에는 1) 자연·문화적 보전가치와 중요성 2) 대상 자산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들의 관심 정도 등이 핵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지내는 당산제는 당산과 당산숲을 지켜 나아가겠다는 신념으로서,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록기준에서 그 요건의 기준항목은 1)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2)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순천시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관자원이나 관련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여 의미를 찾고 지역 경관과 주변 관광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이 관광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데(노재현, 2009), 수 백년의 역사를 지닌 당산과 그 문화만큼 실생활에 살아있는 풍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소재는 없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낙안읍성 마을당산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고찰을 한 것이다. 낙안읍성 마을당산은 3개 마을 모두 상당, 중당, 하당을 갖추고 있다. 노거수는 느티나무 4, 팽나무 7, 푸조나무 6, 개서어나무 2, 은행나무 3그루 등 총 22그루로서 특히, 3그루의 당산나무와 이순신 장군이 식재한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푸조나무가 현존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당산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당산의 존재로 말미암아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안읍성의 마을당산과 그 문화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핵심 전통문화경관’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김학범, 장동수(1994) 마을숲-韓國傳統部落의 堂숲과 水口막이-. 서울: 열화당.
2. 김학범(2007) 마을숲 문화재 자원의 문화적 가치·보전 방안. 마을숲 문화재 보존·관리 심포지엄 자료집. pp.5-20.
3. 노재현(2009) 「驕山九曲歌」를 활용한 ‘馬耳勝景’의 스토리텔링 전략.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20-34.
4. 박재철(1998)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6(2): 133-142.
5. 송갑득(2006) 낙안읍성. 순천시청 안내책자.
6. 신상섭(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외암마을과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27-38.
7. 이선, 이동혁, 이지혜, 송호경(2009) 부여 석성산성의 식생 구조 및 관리

- 방안.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2(4): 23-33.
8. 장동수(2007) 마을숲의 특성과 이용·보전 방안. 마을숲 문화재 보존·관리 심포지엄 자료집. pp. 25-44.
 9.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사), 문화재청(2008) 문화유산 이야기-낙안 읍성. 2008 문화유산 방문교육 교재.
 10. 최원석(2004) 한국의 전통적 경관 보원론(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편, "한국의 전통생태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11. 최재웅, 김동엽(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35-47.
 12. 최재웅(2009)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문화재 27(1): 188-209.
 13. 허경진, 김성철(2001). 한국의 읍성. 서울: 대원사.
 14. Forman, R. T. T.(1995) Land Mosaics: the Ecology of Landscape and Reg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홍선기, 김동엽 역(2000). 토지모자이크-지역 및 경관생태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5. Choi, Jai-Ung, Dong-Yeob Kim, Young-Bo Sagong, Mi-Heui Kim, Byeong-Do Park and Kwang-Lai-Park(2009). Reformation a Dang-san Forest at Seashore of Daebang Village, Sacheon, Korea. 2009 INCHEON IFLA APR Congress Proceeding: pp. 163-168.
 16. <http://www.hani.co.kr/arti>
 17. <http://www.cha.go.kr>
 18. <http://www.nagan.or.kr>
 19. <http://www.nationaltrust.or.kr>
 20. <http://www.ohmynews.com>
 21. <http://tour.suncheon.go.kr>
 22. <http://www.unesco.or.kr>